

AI 시대, 실용음악 교육의 위기와 비판적 고찰

김관진

동원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kimkj00@tw.ac.kr

Popular Music Education in the Age of AI: Crises and Critical Perspectives

Kwan-Jin Kim

Dept. of Applied Music, T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급격한 확산이 실용음악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위기 요인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적 편의성이 창작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문 음악인 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본질적 결함이 발견되었다.

첫째, AI의 자동화된 제안은 학생들의 화성적·선율적 사고 과정을 생략시켜 기초적인 음악적 문해력(Musical Literacy)을 약화시킨다. 둘째, 데이터의 확률적 결과물에 의존함으로써 예술의 핵심인 독창성을 저해하고 창의성의 표준화를 초래한다. 셋째, 음악의 서사적 맥락과 창작자의 철학이 소거되어 정서적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생성물에 대한 학습 윤리 및 저작권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공정한 교육 평가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한정하되,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비판적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용음악 교육의 패러다임이 재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급격한 발전은 음악 제작의 문턱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나,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는 실용음악 교육 현장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음악 교육은 개개인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창조적인 통찰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통합적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을 표현하고 개인과 사회와의 소통과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AI 기술이 음악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4가지 핵심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술 수용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교육적 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기초 역량의 약화와 '음악적 문해력'의 상실

음악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단순히 심미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복합적인 인지적 훈련 과정에 존재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도입은 이러한 교육적 과정을 비대칭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첫째, 비판적 사고 및 분석 과정의 생략이 두드러진다. AI가 제시하는 즉각적인 코드 진행과 선율 구성안은 학습자로 하여금 전통적 화성학 및 대위법이 요구하는 논리적 추론과 구조적 고민의 기회를 박탈한다. 이는 음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인지적 노력을 생략하게 함으로써, 음악 이론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신체적 직관의 퇴화와 문해력 저하이다. 악기 연주와 청음, 채보 등 일련의 실천적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음악적 정보를 체득하는 '신체적 직관'을 형성하는 핵심 기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된 선택으로 대체될 때, 학습자는 음악의 기본 단위와 구조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역량, 즉 '음악적 문해력(Musical Literacy)'의 상실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2.2 창의성의 표준화와 '평균화의 함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확률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패턴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예술의 핵심인 독창성을 위협하는 '평균화의 함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생성형 AI의 활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알고리즘이 도출한 '실패 없는 결과물'에 안주하게 함으로써, 기성 음악의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음악적 스타일의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예술적 가치의 핵심인 개개인의 고유한 예술적 개성이 상실되고 데이터 평균값에 수렴하는 '표준화된 창의성'이 양산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AI 기반의 음악 교육이 알고리즘이 설정한 확률적 범주 내에 국한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비판적 성찰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2.3 인문학적 깊이와 정서적 연결의 부재

음악은 단순한 물리적 소리의 조합을 넘어 창작자의 삶의 궤적과 예술적 철학이 깊이 투영된 서사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업은 이러한 예술의 '서사적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한다. AI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소리의 패턴을 정교하게 모방할 수는 있으나, 그 기저에 흐르는 시대정신이나 창작자의 내밀한 감정적 맥락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악을 유기적인 생명력을 지닌 서사로 다루기보다는 확률적 계산에 의한 데이터의 배열로 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창작자와 수용자 간의 정서적 공감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예술 교육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할 지점은 창작자의 고뇌를 통해 도출된 음 하나가 지니는 울림과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적 깊이'의 격차이다. 인간의 고유한 정서적 경험과 인문학적 성찰이 배제된 AI의 산출물은 설령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며, 이는 예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2.4 실기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실기교육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연주기술을 익히고 연습이라는 훈련을 통해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교육 방법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과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실기교육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실기교육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실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응용력, 창의성 및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실기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학습자가 자신의 기술을 실제로 시행하고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실용음악 전공자들의 양상블은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나 협업을

통해 이루진다. 이는 학습자들이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및 의사 소통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약하면, 실기교육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며,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결론

AI는 음악 교육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창작의 주체인 '인간'을 대체하는 순간 교육적 가치는 훼손된다. 따라서 향후 실용음악 교육은 AI 기술 활용 능력을 가르치는 동시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기초 화성학, 철학적 사유, 그리고 예술가적 정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